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 한 주간의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 조용한 기도

■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1.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2.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피주시네
3.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의 달 이해치 못하네
4.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 기도 말은이

■ 오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19절을 함께 읽습니다.

■ 암송할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대상 29:11)

말씀 나누기

역대상은 다윗의 헌신을 강조하며, 그를 귀한 공동체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재료를 준비 했습니다. 지도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다윗의 감사 고백은 ‘하나님께 드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보여 줍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 물질, 재능 등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말씀행하기

1. 묵상질문

1)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풍성히 준비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나요?
(11-12절)

2)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무엇을 간구했나요?(19절)

2. 삶에 적용하기

1) 재물, 지식, 능력, 관계 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지 나누어 보세요.

2)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이번 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중보 기도

1. 한국 교회가 세속화와 사회적 신뢰도 하락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종교 개혁' 정신을 계승해 말씀을 살아 내며, 신앙의 본질과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합니다,
2. 남미의 원주민 마시코-피로는 학살 피해를 당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고립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 헌금, 찬양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1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2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 할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3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4 이 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마침 기도

주님의 기도(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